| 불자 세상보기 |

불교, 포켓몬GO 활용방안 찾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 열풍
포켓스톱 · 체육관 사찰 등에 설치
사찰 내방객들 늘어… 明暗 존재

사찰 특성 무지, 게임 장소로 생각
분위기 혼란스럽게 만든 사례 발생
사찰도 비난보다는 친절한 안내를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불교계도 트렌드 인식 · 활용 고민해야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포켓몬GO'라는 게임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라는 개념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포켓몬GO 게임은 실제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 가상의 포켓몬들을 배치하고, 그것을 게임 참여자들이 지도 상의 실제 위치에서 잡으면서 시작된다.

증강현실(AR)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가상현실은 전적으로 사이버 상에서만 구현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실재하는 상황과 혼합하여 만든 프로그램이 증강현실 게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켓몬GO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 게임은 사회에서 중요하거나 의미가 부여된 장소에 포켓몬을 배치하여 흥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장소에 사찰이나 종교시설을 비롯하여 박물관이나 상징적인 공원 등 현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둘째, 이 게임은 전적으로 사이버 상으로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직접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고 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에 포켓몬GO는 현실과 가상이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게임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셋째, 이 게임은 포켓몬을 잡고, 힘을 키워 체육관을 장악하고, 세력을 넓혀가는 등 대결과 경쟁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매우 다양한 놀이 방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게임 장소에 일부 사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역사적 장소나 기념물 등이 포함되면서 사찰도 포켓몬GO 게임 장소인 포켓스톱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포켓스톱은 몬스터 볼을 획득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관공서, 병원, 공원, 체육관, 학교, 종교시설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게임에 몰두한 청소년들이 사찰의 특성이나 환경을 알지 못하고 게임의 장소로만 생각하여 예의에 어긋나거나 사찰의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찰을 찾지 않던 청소년들이 포켓몬GO 게임을 위해서라도 사찰을 찾는다면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게임을 위해서만 사찰을 찾는다면 자칫 사찰이 게임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게임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고도정보사회의 변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와 활용도 등을 연구하고 이를 포교의 기회로 활용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불교인구가 급감하고, 청소년들이 거의 사찰을 찾지 않는 것은 새롭게 다가오는 사회 변화에 불교계가 관심과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의 대중화 등은 사회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 불교가 젊은 층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태가 인간의 삶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가를 관찰하고 적절한 해소방법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자칼럼
박아름 취재부 기자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미루지 말라

19대 국회서 무산되며 20대 국회 필수 입법과제로 주목받았던 차별금지법. 지난해 첫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거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졌을까. 안타깝게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서 바른정당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처리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그 어디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달리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룬다.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 장애 · 병력 · 나이 · 성적지향 · 인종 · 피부색 · 용모 · 종교 · 학력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미 미국 · 독일 등 국가서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종교자유정책연구소, 2013년 7월 발표)

불교계는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그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 시대 불자들이 차별금지법에 쌍수를 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조계종은 올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란 종무 기조 아래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적극 가담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했을까.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던 국회의원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혹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했던 국회의원이 특정종교 행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진 않은가. 또는 대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특정종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07년 시작됐다. 당시 법무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의회선교연합이 '성적지향' 포함 여부를 두고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며 학력 · 성적지향 · 병력 등 7개항목이 삭제된 채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의미가 훼손됐다 주장하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고, 2008년 5월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19대 국회에 들어서는 2012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2013년 김한길 ·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 2016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그때마다 보수주의 개신교의 힐난이 국회를 압박했다.

국회가 특정종교 눈치를 보는 동안 무수히도 많은 차별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다. 주취 상태서 노인과 아동, 여성, 장애인, 이주민노동자에 대한 폭력 사태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곤 한다. 또 누군가는 죽어가기도 했다. 나이가 들었단 이유만으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또 성적 지향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에 노출된 이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해야할까.

물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일피일 늦춰지다 또다시 21대 국회를 기약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이 같은 걱정은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社說

포교사 응시자 급감 대책 필요하다

포교사 고시 응시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조계종 포교사단에 따르면 올해 제22회 포교사 고시 응시자는 608명이다. 이는 2년 전인 2015년 제20회 고시 응시자인 1,002명 보다 390여 명이 줄어든 것이다. 비율로만 보면 40%가 급감했다. 지난해 응시자가 75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포교사 고시 응시율은 뚜렷한 감소 추세이다.

이 같은 고시 응시자 감소는 포교사 인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포교사 자격 갱신률은 약 70% 안팎인데, 지난해에는 35명 증가에 그쳤다. 응시자 감소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포교사 인원은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교사 고시 응시가 줄고, 인원 역시 감소하게 된 원인은 단순히 불교대학 수강생이 줄어드는 등 불자 인구 감소에만 원인이 있지는 않다. 더 면밀히 봐야 하는 것은 포교사가 가지는 지위와 활동 영역이다.

불교대학 졸업생이 포교사 고시의 필수 코스지만, 일선 사찰은 포교사 고시 응시를 독려치 않는다. 잘 가르친 신도가 사찰 활동을 하지 않고 외부 포교에 집중하는 것은 좋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 부담과 개인의 원력에만 기대는 현재 포교사 활동 구조와 사찰에서는 봉사자로서 인식되는 불안한 지위도 포교사 고시 응시율이 감소되는 이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님과 포교사, 신도회와 포교사 간 유대관계가 끊기고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포교사 제도에 대한 발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포교사는 불교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종단과 포교사가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 폐교에 부쳐

서울 · 경기 인근 사부대중들이 전문적인 경전 강독을 할 수 있었던 전문 교육기관인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이 2월 8일 7기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했다.

2003년 '불교서울전문강당'으로 시작된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초창기에는 서울 · 경기 지역 스님들이 앞 다퉈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었다. 신심 높은 재가불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청강생으로 전문적인 강독 수업을 제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1년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교육개편이 이뤄지며 불교서울전문강당은 서울불학승가대학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성화된 전문대학원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등이 만들어지면서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입학 수요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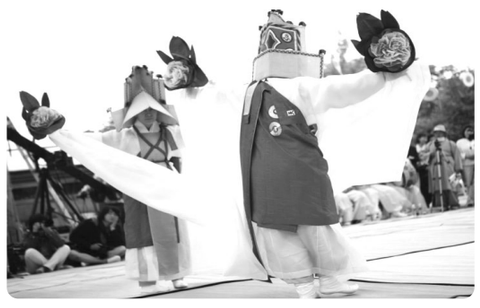
실제 5기 이후에는 급격히 졸업생 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교육원 역시 다양한 교육기회가 생긴 만큼 직영보다는 다른 교육기관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폐교 결정을 내렸다.

자연스러운 '퇴역'이지만 아쉬운 점은 남는다. 한문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황에서 전문적인 한문교육기관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필요하다.

일선 교수 스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문 교육을 받지 않아서 현재 출가자들은 한문 강독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 한문은 어렵지만, 대승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언어이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전문 한문불전을 공부할 수 있는 강좌와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제3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불교의식 범음범패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헤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범음범패)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6개월 수련후 수료증, 1년과정 졸업후 이수증과 법사증 수여(숙식제공 가능)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7. 2. 28.(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문 의 : 포항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교육원 강주스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